

6월 항쟁은 '광주 5·18 항쟁' 전국화의 산물

〈목차〉

- 제1부 되짚어 본 5·18
-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노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 5·18과 한국민주주의

신군부 집권 못막아 외형적으로 실패 민주화 길 터 궁극적으로 성공한 항쟁

신군부의 군화발에 맞선 5·18 민주항쟁은 당시엔 실패한 항쟁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항쟁으로 학자들은 얘기한다.

'반 독재, 민주화'를 기치로 한 6월 항쟁은 군사정권이 공개적으로 민주화의 약속을 한 '6·29 선언'을 이끌어내 대통령 직선제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좀더 넓게 살펴보면,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촉발, 노동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전국의 대학가에서는 학원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었고 농민들은 (군) 단위에 자 농민회를 조직, 스스로 농촌문제를 고민하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선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반면, 5·18 민주항쟁을 통해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의 집권을 막을 수 없었고, 희생자를 양산시켰다는 점에서 무모하기까지 하다. 표면적으로는 공수부대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건 항쟁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6월 항쟁처럼 대중적·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이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었다.

5·18은 헌법마저 무시한 신군부의 권력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87년에 또다시 군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국민적 동력을 만들게 된 사례 또는 계기가 됐다. 즉, 5·18의 가장 큰 성과는 '6월 항쟁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들은 '산 자(者)의 수치심'을 집권자에 대한 증오감 또는 반감을 표출했다.

실제 87년 6월 항쟁 이전의 시위에서는 '광주를 기억하라'가 단골메뉴로 등장할 만큼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5·18은 피로써 부당한 권력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5·18과 6월 항쟁, 4·19 혁명은 모두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거나 민주화를 비롯한 주체 세력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독재에 항거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자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독재 타도에 성공한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1년도 안돼 박정희에게 정권을 넘겨야 했다.

6월 항쟁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전두환을 퇴진시키는 대신 신군부 5공 세력인 노태우 정권을 '산거라는 절차를 거쳐 탄생시켰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군부독재 아래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 뒤에 실패'라는 한계에 직면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5·18, 6월 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라는 글에서 "(광주라는 제한된 공간이 아닌 전국적, 대중적으로 일어난) 6월 항쟁은 바로 '광주의 전국화'였다"며 "광주 5·18 당시의 무장 투쟁과 그것에 참가한 민중들이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졌다고 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민주화라는 이념을 의식하지 않았던 이들의 투쟁이야말로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쳤으나 행동으로는 독재권력에 굴복했던 지식인 등의 노력에 비해 민주화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따라서 5·18은 '외형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운동(항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⑤ 3대 민주항쟁(4·19, 5·18, 6월 항쟁) 비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성과는 멀리 4·19 혁명에서부터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의 촉진(?)이라는 점에서는 80년 5·18민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에 합입했다는 데 이렇다할 이견이 없다.

5·18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2010년,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후퇴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5·18민주항쟁과 4·19 혁명, 6월항쟁 등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들을 짚어본다.

부터의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는 점도 공통된다. 80년 5월 항쟁은 신군부를 몰아내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학생과 시민 등이 '시민군'이 돼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대항했고, 6월 항쟁도 특정 계급이 항쟁을 주도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4·19 혁명도 장기 독재에 따른 부정부패 만연, 농촌경제 파탄 등으로 학생, 도시민,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하면서 정권을 끌어내리게 됐다.

이들 3가지 민주화 운동(또는 혁명)은 모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우기 위해 소총으로 무장하고 군용 차량에 탑승한 광주 시민군들이 도청으로 상봉하는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군부독재에 항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위). 1987년 6월 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호남중 교회에서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고 있다. 6월 항쟁은 5·18 민주항쟁의 연장선 혹은 '광주의 전국화'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독재에 항거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운동 5·18, 무장 시민군 군인과 싸운 최초 항쟁

◇군부나 독재에 대한 민중의 항거=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80년 5·18민주항쟁과 4·19 혁명, 6월항쟁은 '군부나 독재 세력의 집권연장' 시도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됐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1979년 박정희 서거 이후 혼란을 틈타 12·12사태로 정치 전면에 등장한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 갑대중 구속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에 대한 반발로 광주 시민들이 전투용 타도를 외치면서 광주항쟁의 불씨는 당겨졌다.

6월 항쟁도 87년 박정희 고문치사 사건이 촉매가 돼 국민의 불만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전두환이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노태우에게 권력을 넘기려한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부익만 익힌 현상으로 민중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 독재 아래 4·19 혁명의 불씨는 피어올랐다.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소 달랐으나 독재와 군부 세력의 집권연장을 끝장내려는 국민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특정 계급이 이들 3가지 민주화 운동(또는 혁명)에서 중심 축을 이루지 않고 학생, 노동자, 도시민, 지식인 등이 함께 나선 '밑으로부터

두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전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점도 같다. 5·18항쟁과 6월 항쟁의 경우 '지도부'가 구성되긴 했으나 시위 과정에서 결성됐을 뿐, 사전에 조직되고 준비된 지도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4·19 혁명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엄군의 총칼에 맞선 광주 '시민군'=80년 광주항쟁이 87년 6월 항쟁과 앞서 일어난 4·19 혁명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 일부'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5·18의 지역적 한계'는 5·18 광주항쟁을 '광주 시민들 혹은 전라도 사람들'의 것으로 축소하고 광주의 지역주의와 결부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6월 항쟁과 4·19 혁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광주항쟁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항쟁의 원인과 의미, 전개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도 광주항쟁이 전개된 범위가 지역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다른 2가지 항쟁과 달리 5·18 민주항쟁에서는 항쟁 주체인 시민들이 '총칼'을 들고 민중이 신군부에 맞서 싸웠다는 점이다. 6월 항쟁과 4·19 혁명에서는 동원되지 않았던 군이

광주에 투입돼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시민군으로 변모해 도청을,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군부독재의 정통성 부재를 피로써 증명해 보였다.

4·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했으나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6월 항쟁에서도 최후단이 바타나고 시위가 전국화되면서 경찰력은 무력화됐지만, 지배집단은 광주항쟁의 경험과 미국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군 투입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정재호는 '한국민주주의운동의 비교 연구'(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을 중심으로)라는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4·19혁명, 6월항쟁과는 달리 광주민주항쟁에서 신군부는 유신체제 붕괴 후 군부정권의 재생산을 위해 군인까지 동원, 학살 만행을 자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신군부는 태생적인 정통성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 / 학 / 안 / 내

영화에 빠지다

메가박스

1관	주유소습격사건2(184)	최고급판
2관	용서는 없다(184)	
3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4)/설복롬즈(124)	
4관	8인-최후의 결사단(154)	
5관	전우치(124)	
6관	용서는 없다(184)/웨딩드레스(전제)	
7관	주유소습격사건2(184)	
8관	아바타(124)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4)	

• 아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차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역국사거리 ☎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500일의 험머(164)	
2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4)/설복롬즈(124)	
3관	전우치(124)	
4관	전우치(124)	
5관	웨딩드레스(전제)/용서는 없다(184)	
6관	앨빈과 슈퍼밴드-더빙(전제)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4)	
7관	아바타(124)	
8관	아름의 귀환(전제)/주몽진(124)	
9관	주유소 습격사건2(154)	
10관	아바타(124)	

힐트사랑 영화시방 • 메 1588-7941
상무점 (삼부동원래 이마트 사이) 메남점 (무의화관앞편)



1588-7941 상무점원래 별명-(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아름의 귀환(전제)/더로드(124)	
2관	주유소습격사건(154)	
3관	설복롬즈(124)/용서는 없다(184)	
4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4)/웨딩드레스(전제)	
5관	주유소습격사건(154)	
6관	500일의 험머(164)	
7관	아바타(124)	
8관	아바타(124)	
9관	전우치(124)	
10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4) 주유소습격사건2(154)	

• 500여대 넘는 주정(3시간)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비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스피드 21-5767 • 하이 스피드 262-0925
• 하이 스피드 21-5000 • 하이 스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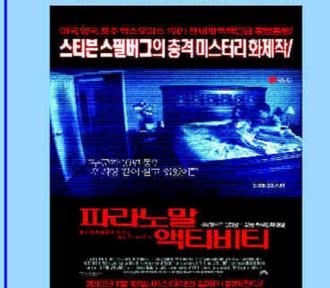


고려시방 고려광동 www.hamichinema.co.kr/1588-9120
전미무문 하미스포텍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아바타(124)	
2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4)	
3관	용서는 없다(184)	
4관	웨딩드레스(전제)	
5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4)	
6관	설복롬즈(124)/주유소습격사건2(154)	
7관	전우치(12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독자 사후(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m/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바타(124)	
2관	주유소습격사건2(154)	
3관	500일의 험머(164)	
4관	용서는 없다(184)	
5관	설복롬즈(124)	
6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hema.com/www.jelicinema.co.kr •
총상영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